

“대마산단·송림농공단지 우량기업 유치...지역경제 살리겠다”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김준성 영광군수

김준성(62) 영광군수의 당선은 지역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초반에만 허더러도 정기호 전 군수에게 밀려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일에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의 관심이 김 군수에게 쏠리면서 언론에서도 ‘격전지’로 분리하고 관심을 갖게 됐다. 자수성가한 영광군의원 출신인 김 군수는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 이의를 제기하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고 3선에 도전하는 현직 군수에 맞서 대마산단 조기 활성화 대책 마련 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밀바다 표를 다져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군수는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자신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고 자신이 약속한 정책들을 빈틈없이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역점 추진시책 5가지는

- ①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 ②지역경제 역동적인 발전
- ③풍요로운 농어촌 건설
- ④감동있는 문화관광 육성
- ⑤꿈을 여는 평생교육 실현

대마산단 조기 활성화 방안은

25개 기업 유치·2500명 고용
공격적인 투자유치 목표 설정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
재정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 어떻게

65세 이상 무료버스 운영
장수수당 범위·액수 확대
장애인 복지·자립 지원센터 건립
산부인과 전문병원 유치

-민선 6기 주요 국정 운영 방향은.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공개행정, 공정행정, 공명행정, 공감행정 등 ‘4공(公) 행정’을 민선 6기 국정 운영 방향으로 정했다.

모든 군민이 알 수 있는 공개행정을 하고, 모든 군민에게 평등한 공정행정을 하며, 모든 군민에게 사사로움이 없는 공명행정을 할 것이다. 나아가 모든 군민들이 느끼고 마음을 여는 공감행정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러한 국정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첫째,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군정의 최우선을 두겠다.

둘째, 지역경제를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특히 대마산단과 송림 그린테크단지의 조기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셋째,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겠다. 자유무역협정과 시장개방 요구로 농·어업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다. 이런 상황일수록 농·어업이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해 농·어촌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겠다.

넷째, 감동있는 문화관광 육성으로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다섯째, 꿈을 여는 평생교육을 실현해 가겠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교육에 있고 한 사람의 인재가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사례가 많이 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영광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단연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닐까 싶다. 특히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은 지역경제의 쟁점 없는 문제다.

영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반이 조성돼 있어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와 송림 농공단지 등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경제침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량 기업 유치로 산단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상 유례없이 치열하게 치러졌던 선거였던 만큼 양분됐던 지역민심을 추스르고 군민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일 또한 시급한 문제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지지와 견해를 달리하신 분들의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여



김준성 군수 프로필 ▲1952년 영광 출생 ▲호남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졸업 ▲영광군변영회 부회장 ▲제4대 영광군의회 의장 ▲심지중합건설 대표이사

연내 착공 법성포 뉴타운 기관·사회단체 이전토록 총력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농업경쟁력 확보로 FTA 대응

반복과 갈등이 없는 영광군을 만들어 가겠다.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군정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최근 복지분야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말이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다. 자본과 생산이 소수에게 편중되고 소득격차가 심화된 사회구조에서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의 복지여야 한다.

복지확대는 예산낭비가 아닌 군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 필수사항이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영광을 만들 것이다.

먼저, 선거기간 화두가 됐던 65세 이상

무료버스 및 장수수당의 범위와 액수를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 경로당 공동부식비와 경로우대 목욕이용권을 지원하고 중증 장애우의 활동 보조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영유아 보육환경개선과 다문화가족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장애인 복지 및 자립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노인전문 치료병원 확충과 산부인과 전문병원 유치 등 복지와 의료서비스 시설 확충에도 적극 투자하겠다.

-대마산단의 조기 활성화 방안은.

▲올해 영광군은 25개 기업 유치, 2500명 고용이라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유치 목표를 정하고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공장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 실현을 위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마산단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먼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적기에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e-모빌리티와 연관된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을 포함한 중견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e-모빌리티 관련 우량기업을 중점 타겟으로 정하고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 대책은.

▲법성포 뉴타운은 분양대상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법성지역 기관·사회단체의 뉴타운 부지 이전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성파출소가 뉴타운 부지로 이전했고 올해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만물장어 유통센터의 분양계약이 완료돼 연말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여러 기관 단체가 법성포 뉴타운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두 번째는 각종 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이다. 현재 뉴타운 중심부에 부지를 확보한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가 오는 10월 착공 예정이다. 또한 뉴타운 부지에 굴비산업특구 추가 지정을 추진중으로, 2015년 칠산대교가 준공되고 굴비산업특구가 지정된다면 배수 해안도로부터 법성포 뉴타운까지 관광벨트가 형성돼 뉴타운 활성화와 굴비산업 발전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영광읍이 터미널 상권이기에 인해 원도심이 공동화되고 있는데.

▲영광읍 상권이 사거리에 있던 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사거리 상권이 침체되고 원도심 공동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광읍 사거리에 루미나리에 거리를 조성했으며, 구도심 및 영광 매일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장의 판매기능과 더불어 관광문화기능, 고객 편의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영광군의 전통과 현대 먹거리의 독특한 맛과 멋을 살린 추억의 향토음식 전문 특화시장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구도심 상권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도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영세상인들의 운영자금 지원 및 사채 등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 소액자금대출사업을 매일시장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사거리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FTA 파고를 넘을 농·어업 진흥정책이 있다면.

▲민·관 합동의 농업발전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겠다. 벼 우량종자 구입을 지원하고 공동 파종장을 설치해 주요 농작물 선별장과 추곡건조 저장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분소를 설치하는 한편 참배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소득작목의 다양한 개발과 떡산업 연구소 설립 등 경쟁력있는 농업에 집중 투자하겠다.

또한 어민 복지회관 건립과 어구 건조기구 및 작업장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어민들의 기초생활 환경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다.

/장필수기자 bungy@

/영광=조희상기자 ischo@

/사진=김진수기자 jeans@



시내지국

광천	366-8375
남광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6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웅봉	522-7752
우산	512-8116
윤천	371-9818
원철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6604
진월	673-1600
진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